

문장 다음 문장

쓴다

소설을 쓸 때와 산문을 쓸 때, 내 몸은 다르게 움직인다. 소설을 쓸 때면 내 몸에 붙어 있는 수백 개의 나사를 느낀다. 나사는 딱딱하게 조여져 있다. 온몸에 긴장이 감돈다. 문장 하나를 썼다가 지운다. 문장 하나를 썼다가 고친다. 문장 하나를 썼다가 그 문장을 아래로 내리고, 새로운 문장을 쓴다. 새로운 문장이라기보다 비슷한 문장이다. 비슷한 문장이 수십 개 쌓인다. 내가 만들어낸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문장이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더디게 전진한다.

산문을 쓸 때 내 몸은 한없이 풀어진단다. 몸에 붙어 있는 모든 나사를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느슨하게 만든 다음 한 문장씩 써나간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몸에 대한 산문을 자주 썼다.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몸의 감각, 점점 나빠지는 시력, 글을 쓰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깨 결림, 손가락과 발가락의 이야기를 글로 썼다. 한 해 동안 몸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다보니, 몸에 대해서는 더 잘 알게 됐지만 몸이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만 쓰기로 했다. (무관심이 최선의 방책이다.) 2014년부터 새롭게 쓰기 시작한 것은 ‘창작’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매일 뭔가를 만든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낙서를 하고 편지를 쓰고 말을 한다. 생활의 모든 것이 창작이다. 사람들은 예술가들만 창작을 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 매일 창작을 한다. 어제 본 드라마의 줄거리를 누군가에게 얘기해줄 때 우리는 창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만의 방식으로 줄거리를 요약하고, 어떤 부분은 지문으로 어떤 부분은 대사로 전달한다. 이게 창작이 아니고 뭐가. 업무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우리는 창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부터 할까, 아니면 곧장 일 얘기로 시작할까, 아니면 멋진 인용구로 시작할까. 어떤 방식이든 모든 창작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스타일이 묻어나게 마련이다. 나는 생활에 깃든 모든 창작의 비밀과 원리를 알아내고 싶었다.

소설을 쓴 지 15년이 됐지만 글을 쓴다는 게 대체 어떤 일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내 머릿속은 언제나 카오스다. 생각과 잡념이 뒤섞여 있고, 감정과 감각이 구별 없이 널려 있고, 쓸모와 무쓸모가 경계 없이 넘나들고 있다. 나는 카오스인 내 머릿속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졌다. 내 머릿속의 혼돈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창작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창작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창작에 비밀이 있을까? 없다는 게 내 생각이지만 있을지도 모른다. 있다면 어떤 비밀일까. 단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비밀은 아닐 것이다. 너무 장황해서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이야기여서 그냥 비밀로 물어두려는 것은 아닐까. 옛날 옛날 한옛날에 “자, 창작이라는 건 말야.” 하고 씩 살 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야기를 마치지 못하고 죽어버린 팔십의 창작자 때문에 “이분을 기리는 뜻에서 창작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비밀로 물어두자.”는 암묵적 동의가 생겨난 것은 아닐까. 다른 상상도 가능하다. 옛날옛날 한옛날에 “자, 자네가 하고 있는 창작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겠네.”하고 씩 살 때 창작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결국 몇 사람 해결해주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 팔십의 창작 컨설턴트 때문에 “이분을 기리는 뜻에서 창작에 대한 상담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는 암묵적 동의가 생겨난 것은 아닐까.

창작이나 글쓰기에 대한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개중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도 더러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은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더 자주 나누어야 한다. 각자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어떤 감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서로의 마음을 좀더 자주 들여다보아야 한다. 나는 여전히 쓰고 있고, 쓰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쓰고 있고, 쓴다는 게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계속 쓰고 있다.

읽는다

소설을 쓴 지 15년이 됐고, 출간한 책도 10권이 넘어가다보니 함께 일한 출판사도 많고, 알고 지내는 출판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출판사에서는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책들을 수시로 보내주는데, 평균을 내보면 일주일에 다섯 권쯤 집으로 배달되는 것 같다. 공짜로 책을 받는 일이 과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책만 보면 기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 놈의 책 욕심은 언제쯤 사라질까!) 내가 사고 싶었던 책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책일 경우도 많다. 대체 어떤 책일지,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모든 것이 궁금하다. 나는 표지를 열심히 살펴보고, 책 날개들도 살펴보고, 작가의 약력과 작가의 말도 꼼꼼히 읽는다. 차례로 읽는다.

집으로 도착한 책은 한쪽에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살핀다. 이른 새벽, 내게 배달되어온 책을 훑어보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내가 산 책들은 내가 필요해서 산 책들이지만, 내게 배달되어온 책들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 같기도 하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짐작할 수 없다. 세상에는 여전히 책을 믿고, 책을 만들고, 책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2014년부터 ‘창작의 비밀’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어서 창작에 대한 책을 만나면 눈이 번쩍 떠진다. 창작과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은 어지간히 다 모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새로운 책들이 출간된다. 다 아는 이야기도 있고, 전혀 몰랐던 이야기도 있다. 글쓰기와 창작에 대한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작업실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떨리는 마음이 될 때가 많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이런 기분으로 글을 썼구나, 이런 실패를 거쳐서 좋은 소설을 쓰게 됐구나, 새로운 비밀을 파헤쳐 가는 기분이다. 커트 보네거트의 『나라 없는 사람』은 좋은 산문집이면서 훌륭한 글쓰기 교재이기도 하다. 스티븐 킹에게 미안한 이야기만 스티븐 킹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읽은 것은 『유혹하는 글쓰기』다. 한창훈 작가의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를 읽고 나면 내가 쓴 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며칠 전에 도착한 이성복 시인의 세 권짜리 시론집을 읽으면서 나는 무릎을 얼마나 자주 두드렸는지 모른다. 그중에서도 『불화하는 말들』은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교재다.

글 쓰는 건 저도 피하고 싶어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막막하다, 할 때 이게 사막의 ‘막(漠)’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막막함은 좋다는 거예요.
또는, 좋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막막함,
그 막막함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수도자가 돼요.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읽고 나니, 길게 말하고 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도 말해야지.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쓰고 말해야지. ‘분명한 건, 이 막막함은 좋다는 거예요.’에서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막막함은 좋은 것이다. 막막한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혼자 뒤집어쓰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글쓰기고, 창작이다. 나는 기꺼이 좋다고 받아들이겠다.

이성복 시인은 막혔을 때 카프카를 읽는다고 했다. 『극지의 시』에는 이런 대답도 있다. “어떤 작가를 스승으로 택한다는 건 배우자를 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스승이 없으면 헤매게 돼요. (...) 글을 쓰려면 내가 먼저 아파야 해요. 그래야 남을 아프게 할 수 있지요. 나도 안 아프면서 어떻게 남을 아프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요. 글쓰기를 통해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연히 알게 돼요. 시가 뭔지, 시가 어디 있는지 말이에요.” 나는 막혔을 때 커트 보네거트를 읽는다. 막혔을 때 읽는 책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나는 책을 읽는 시간보다 탄짓을 하는 때가 더 많다. 드라마를 보고 레드벨벳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한다. 나는 그 모든 게 독서라고 생각한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나는 세상을 읽어내고 싶다.